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기

로마서 12:9-21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떠날 당시,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25년 동안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여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업을 거쳐 캐나다로 돌아와 일 년 동안 공부와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그 뒤 거의 20년 가까이 브라질에서 생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떠날 당시에는 조카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가장 어린 조카들이 이미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세 아이를 두었고, 제 직계 가족 또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풍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서의 경험으로 저 또한 변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제 자리를 찾는 데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이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오셨습니까? 고국에 있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기쁠 것 같지만, 더 이상 그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 또한 변했습니다. 그곳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행사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사도행전 2장) 로마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 수십 년 동안에는 교회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49년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들의 부재로 인해 교회는 점점 비유대적인 성격과 지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인 서기 57년경 (거의 10년 후),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도록 조용히 허용했지만,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크게 변화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음식법과 성스러운 날을 멀리하려고 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관습에서 최대한 단단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다닐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윌링던 교회 가족이 대표하는 모든 언어, 민족, 국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빌더, 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 세대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다문화, 다세대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21세기 메트로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쓰였습니다.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답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8:14-15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원하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신 분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반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 구성원과 교회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약문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우리가 두 개의 교차점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빠른 연속적인 충고에서 우리에게 약 23가지 일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절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한 개의 교차점을 형성합니다.

10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11-12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섯 가지 방법.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14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세 가지 방법

16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교차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를 지배해야 하는 교회 가족의 중심 덕목입니다.

다른 하나의 교차점은 1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외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적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17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 18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 19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 20 적이 배고프면 먹이십시오.
- 2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두 섹션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1) 진정한 사랑을 키우는 것
- (2) 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첫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한 사랑을 키우십시오.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은 진실하게 하라”(ESV)라고 썼습니다. 원본의 진실이란 것은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극장의 세계에서 비롯되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배우가 종종 여러 역할을 하며 각 캐릭터마다 다른 가면을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영화, 노래, 소셜 미디어 등 모두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를 보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공유합니다. 좋은 제스처이지만, 바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생명과 의미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기도 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정한 사랑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근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험담과 험담의 영혼을 가리는 로비스러운 "친절" 문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형성합니다. 이것이 교회 가족의 기본 덕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받았으니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릇되고 죄 있고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형제애라는 말은 형제자매간의 다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신은 가족입니다. 정말 사랑해요!"라고 효과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딸 Alanna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그녀의 첫째 아이인 Leon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동생을 안고 싶었고, 씨름하고 싶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여동생 안넷이 집에온지 약 7주 정도 지났습니다. 레온은 안넷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사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건 아마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내 여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쁨에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들이 울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로마 문화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매우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엘리트인지, 누가 대중들에 속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앉았던 곳과 엘리트가 앉았던 곳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가족이 투구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엘리트 계층은 1층, 일반 남성들이 2층에 앉아있으며, 여성과 외국인은 맨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검투사 싸움의 무료 티켓은 가난한 사람들을 조용하게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가난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가족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경제 계급이 함께 모입니다. 수 세기 동안 캐나다에 살아온 가족들과 새로운 이민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 중인 다른 민족들도 함께 모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남성과 여성, 독신자와 기혼자가 함께 모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어떤 정당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로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체성 정치가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에서는 다문화 및 세대 간 우정 형성을 장려하는 구조가 매우 드뭅니다. 여가와 사회적 활동은 종종 연령에 따라 정의되어 있어 세대 간의 격차를 남깁니다. 난민과 새로 온 이민자들은 기존 가족들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 문구는 문자 그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돕는 데 참여하라”입니다. 음식, 의복 및 주택을 넉넉하게 제공하십시오. 서로에게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찾아가며" 또는 "추구하며" 낯선 사람을 대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외국인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바로 "이방인을 사랑함"을 의미하는 필록세니아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필록세니아가 필요합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복음이 집 열쇠와 함께 온다(The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앙 없는 급진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 복음 전도집회? ... 인쇄물? 시러큐스 대학의 문학 및 여성 연구 교수를 자기 쪽으로 끌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소박한 집에서의 저녁 식사로의 초대를 통해, 매일 복음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겸손한 부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급진적이고 평범한 환대"를 통해 우리의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일상적이고 때로는 복잡한 삶, 가정 및 소그룹에 환영할 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7-21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선한 것을 붙들고 있으라.

바울의 관점에서 로마 사회는 진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창조물로 바꿨고, 하나님 대신 거짓을 쫓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상화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애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 돌아서 자신을 숭배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캐나다 사회의 도덕적 구조가 무너졌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완전한 성의 자유(내 마음과 몸을 원하는 대로 한다)를 요구하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대상화, 괴롭힘, 폭력적 학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지만 누구도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옳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겠는가” 같은 가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실제로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구성원 중 한 명이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저 나쁜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저 가게에서 쇼핑할 생각 없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지키며 성 정체성 이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가게가 나쁜 것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곧 1세기로 되돌려 보냅니다. 로마인과 그리스인은 기독교인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무역 길드에서 추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9b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악을 “혐오”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며 선에 고착해야 합니다. “붙들다”라는 동사는 결혼의 결속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접착하다',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끈질기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덕적 타협을 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관대해지고 우리의 신념에 대해 주저하게 됩니다. 악에 대해 관대하고 안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애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열심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불타오르라”라는 것입니다. 사진은 냄비가 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굳게 붙들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허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행해진 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국제적 위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1) 저주하지 말라(14절).
- (2)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17절).
- (3)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19절).

(4) 악에게 지지 말라(21절).

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악을 혐오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축복하라(14절);

(2) 선한 일을 행하고 화목하게 하라(17-18절).

(3)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섬기라(19-20절).

(4) 선으로 악을 이기라(21절).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긍정적).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부정적). 당신의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때문에 당신을 불공평하게,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난주에 저는 이단인 번영 전도사가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싸움에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에 계속해서 더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데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18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십시오.

바울은 19절에서 덧붙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신 32:35-3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명령은 보복과 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수를 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벧전 2:23)

우리 개인적인 적에 대한 거의 모든 공격 행위는 우리의 성급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수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12 ...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고나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잠언 25장 21-22를 인용합니다.

20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를 주어라.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가 여러분께 기대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물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들의 신앙 주장, 도덕적 관점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은 이렇게 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2:39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20절)이라는 이미지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회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타오르는 석탄은 상처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고,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 체계,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그분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바울은 요약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일 우리가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한다면 우리는 악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화평을 이루며 섬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뉴스 사이클을 따라가기만 해도 악에 의해 정복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 이스라엘, 북한과 한국,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 휘발유 가격 상승, 주택 위기, 안락사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 국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메시지에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피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킬 공간을 드리십시오.

선을 불드십시오. 셰비 휴스턴의 삶은 2021년 12월 3일 경찰관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비통함과 용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며칠 전,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쓴 남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Shelby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걸작이다”라고 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캐나다에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닙니다. 캐나다 사회가 도덕적 기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은 훌륭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것을 고착하고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묵상 질문:

1. 도움이 필요한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새로운 이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2. 과거나 현재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